

지하 2층, 지상 4층과 옥내 계단실·물탱크실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의 주용도는 시장(1층)으로서 신·구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지하에 다방과 음식점, 1층에는 시장의 외 은행과 음식점이 있으며 2층에서 4층 사이에는 여관·의원·다방·음식점·카바레·예식장·당구장·학원·탁구장 등, 각종 업소가 복잡하게 들어 있는 복합 건물이다. 주위(후면·측면)에 통로가 없고 재래식 시장과 접해져 있다.

청원소방관 등이 불길 잡아

경보설비로 인명피해 방지

1984년 10월 16일 21시 25분경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발화 원인이 누전인지 또는 여관 종업원의 전기 기기 취급 부주의 인지는 확실치 않다. 어쨌든 전기적 원인에 의해서 이 화재는 3층 여관 객실에서 발화하여 21시 30분경에 소방서에 신고되었다.

소방대는 21시 40분에 도착, 펌프 및 물탱크차 7대와 지휘차 2대가 현장에서 즉시 소화작업을 실시하여 객실 7개, 변소 1개, 계단실 1개, 복도 일부등 총 110m² 정도의 면적이 소실된 후 22시 40분에 완전 진화가 되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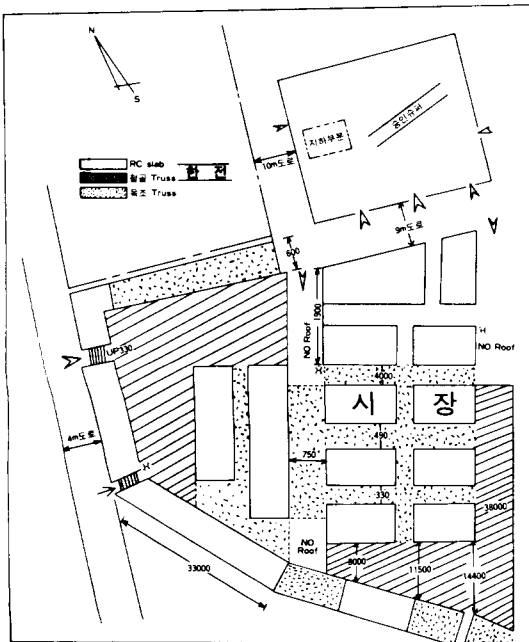
화재의 진압 과정을 살펴보면 화재를 처음 발견한 여관 종업원이 즉각 이 사실을 전화로 소방서에 통보하고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에 착수하자 다른 종업원들도 투숙객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함께 소화 작업에 참여하였다.

한편 화재 발생 사실은 자동 화재탐지 설비로도 감지되어 전층에 알려졌다. 이때에 시장의 청원 소방관이 달려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화기와 2층에 위치한 옥내 소화전을 이용하여 불을 꺾으나 가연성 내장재가 많은 편이어서 초기에는 소화 작업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불길이 점차 잡히게 될 무렵 소방차가 달려와 완전 진화가 가능했다.

가연성 내장재가 비교적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화가 되어 큰 손실을 내지 않은 것은 여관의 용도별 방화 구획이 양호하여 타부분으로서의 확대가 방지된 때문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원 소방관과 종업원이 소화기 및 소화전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한 것도 큰 보탬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인명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첫째 종업원들의 신속한 피난 안내, 그리고 둘째 경보 설비에 대한 점검 결과 지속적인 보완 요망 결과 설비가 적시에 작동하여 투숙객들이 피난할 여유를 가졌던 이유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 재산피해 : 건물소실 약 110m²
- 소재지 : 서울 도봉구 미아동 465-6
- 발화시간 : 84. 10. 16 21 : 25(추정)



훈련안된 당직자 속수무책

먼저 교환실에서 당직실로 연락

- 재산피해 : 2,500여만원
- 소재지 : 전남 광주 동구
- 발화시간 : 84. 12. 21 05 : 05

발화 건물은 대학교 본관 후면에 위치한 독립 건물로 주용도는 구내 식당이다. 발화 원인은 미상이나 전기 가열기(전빵 찜통)의 누전에 의한 것인듯 하다.

화재는 1984년 12월 21일 아침 5시 5분경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최초의 발견은 5시 30분경 본관 2층 교환실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교환실 야간 근무자가 야간 근무 중 약간 졸았던 듯 하였는데 그무렵 영하 7~8도의 추위 때문에 창문을 꼭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가 새어 들어오며 냄새가 나며 목이 메는 느낌이 들었다. 이에 창문을 열고 후면 식당 건물을 보니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곧 당직실에 연락하였다.

연락을 받은 야간 당직자가 화재 현장을 확인하고 소방서에 연락을 하였는데 그때가 5시 35분 경이었다. 당직자들은 화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이후인지라 자체 진화 노력은 포기했으며, 더구나 교육 훈련도 되어 있지 않아서 손을 쓸 도리가 없었다. 구내 식당 건물에는 소화기 외에는 소방 설비나 기기가 없었고, 인접된 본관 건물에는 옥내 소화전이 있었으나 그나마도 불량하였으며, 게다가 작동이 된다 해도 당직자들은 사용 방법을 몰랐을 것이다.

5시 40분경 지휘차 1대, 펌프차 4대, 고가 사다리차 1대가 도착하였으나 구내 식당 후면에 LPG 용기가 설치되어 있어 폭발 우려로 진화가 어려웠다.

소실 부분은 식당 277.2m², 복사열에 의한 본관 유리창 파손 및 벽체 연기 피해 등 약 2,5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화재 사건에서 한가지 문제되는 점은 일부 기관에서 야간 당직자의 임무가 방법에만 치우치고 있어 방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방화 관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큰 건물들 사이에 있는 소형 부속 건물들은 짐집자들의 착안이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점검의 사각(死角) 지대가 되기 십상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 사진설명
 ① 본관 3층에서 내려다 본 화재현장
 ② 화재로 소실된 식당 내부

양호한 방화구획 화재확대 방지

전기 배선에서 발화

- 재산피해 : 2,900여만원
- 소재지 : 부산 남구
- 발화시간 : 84. 11. 10 11 : 55



발화 건물은 소위 비치 맨션으로 불리는 공동 주택으로 화재는 1984년 11월 10일 토요일 11시 55분경에 213호동 102호 계단실의 지층 전기 배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발화 원인은 전기 배선의 합선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명확하지 않다.

213호동 102호 계단 입구에서 경비 근무중이던 경비원이 갑자기 정전이 되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여기고 주변을 살펴 보니 바로 옆 지하실 환기 창문 등에서 연기와 독한 가스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지하층 출입문을 열어보니 연기와 가스가 차 있어 관리실에 알리고 고함을 질러 주민들에게 알렸다.

다른 경비원들이 소화기를 들고 달려와서 일부는 주민 5명을 구조하고 일부는 지층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유독 가스가 심하게 나와서 실패하였다.

한편 관리실에서는 연락을 받고 즉시 전화로 소방서에 신고, 소방차가 출동하여 진화할 수 있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재산 피해는 각종 전기 배선의 일부와 배관 보온 재료 등이 소실되고 발화 지점 지층 내부 일부가 연기 피해를 입는 등 총 2천 9백여만원 정도였다. 동원된 소방차는 지휘차 1대, 펌프차 3대, 화학차 3대, 고가 사다리차 1대였으며 도착 후 45분만인 12시 55분에 완전 진화되었다.

방화 구획이 양호한 편이어서 피해 부분은 발화층에만 국한되었다. 그러나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감수신기별오 동작이 자주 있었고 도통이 불량하여 화재 당시에는 진원을 감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보를 발하지 못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다행히도 경비원이 고함을 치면서 직접 주민들을 인도하였으며, 밤중이 아닌 낮이었기 때문에 비극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경비원이 1·2호 승강기로 주민 5명을 구하던 중 정전이 되었으나 다행히 승강로 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은 위 기일발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화재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안된다는가, 문 밖의 화재가 감지될 경우 함부로 문을 열어 보아서는 안 된다는가 하는 등의 기초적인 사항조차 경비원들이 모른다는 사실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

◀ 사진설명
다트내 각종 배관의 보온재 소실 모습